

중미 간 경제무역 갈등의 본질 및 대응방향에 대한 중국내의 인식

이 정 남*

❖ 요약 ❖

이 글은 중미간 경제무역 갈등의 본질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중국의 지식인과 정치지도자의 인식을 살펴보고, 시진핑 정권의 대응방향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현재의 중미 간 경쟁과 갈등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현 시기를 ‘백년 미답의 대변화 국면(百年未有之大變局)’으로 규정짓고 장기적인 대응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 국면 속에서 중국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미국과 보다 균형적인 새로운 강대국 관계 설정을 강조하는 시각과 도광양희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기보다는 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수정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역량으로서 미국과

타협의 길을 찾는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신형대국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 주석의 국가대전략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기된 신형대국외교, 일대일로 전략, 글로벌 거버넌스체제 개혁, 그리고 전 지구적 동반자관계의 구축 등에 대한 기존의 언술을 톤다운 시키고, 실현 시기를 좀 더 길게 잡는 정도의 정책조정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술적으로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여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덜 부각시키고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여 개혁한다는 주장을 통해 현 국제질서를 수정하고자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어: 중미간 경제무역갈등, 중미간 세력경쟁, 신도광양희,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I. 서론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전면에 내걸고 국내외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끌어내었다.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

DOI: 10.35390/SEJONG.26.1.202002.003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중국정치외교전공

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른바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통하여 ‘신형국제관계’ 수립과 ‘인류운명공동체’의 형성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로 제시했다(『新华网』 2019.3.10.).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개혁,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지역 협력 메커니즘과 국제적 규칙체계의 확립, 그리고 세계적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수립 등을 통한 중국 국가이익의 세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门洪华 2018). 대내적으로는 집권 1기에 이른바 ‘소조정치’를 통해 당정의 핵심적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시진핑에게 집중시키고, 대대적 반부패투쟁을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하여 주석직에 대한 임기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을 위한 조건을 구비하여 왔다.

특히 시진핑은 2018년 6월 22~23일 열린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중국은 근대 이래 최고의 발전기에 있고, 세계는 ‘백년 미지의 대변화 국면(百年未有之大变局)’에 처해있으며, 이런 상황이 함께 뒤엉켜 서로 격동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외사업무에서 당 중앙의 통일적 영도를 강화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사명으로 하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외교를 추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평화적 발전의 길의 견지, 전 세계적 동반자관계의 구축, 글로벌 거버넌스체제 개혁의 선도(引领), 핵심이익의 수호와 중국 외교의 독특한 품격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한 시진핑 외교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新华网』 2018.6.23). 그 이후 다수의 학자들은 시진핑이 제시한 ‘백년 미지의 대변화 국면’의 본질은 국제적 세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세계질서의 재구성임을 강조해 왔다(陈向阳 2018; 朱锋, 黄仁伟 2019).”

그러나 2019년 현재 시진핑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것은 미국이 무역, 과학기술, 금융, 안보, 인권과 민주주의 등 전방위적 영역에서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중국에 대한 공격과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중국이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선일보』 2019.3.15.). 2019년 3월 전국인대에서 감세와 기타 메커니즘을 통한 민간경제 부문의 발전 촉진, 외국 기업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발표, 미국의 비판의 초점이 된 ‘중국 제조 2025’ 언급 자제 등과 함께 2019년 경제성장 목표를 지난해 6.5%에서 6%로 낮추는 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면서(张杰 2019),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련의 타협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1차 무역 협상결과가 2019년 12월 13일

에 최종 서명되었는데, 합의 내용은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환율부문에서 중국의 경제 및 무역체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 및 기타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상당 규모로 추가 구매할 것과 합의의 신속하고 효과적 이행 및 시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비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제301조 관세 조항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19). 이것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상당 정도로 수용한 것이지만, 중국기업의 보조금 지급 금지, 금융시장의 가시적 개방, 이행의 보장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내에서는 시진핑의 대외정책과 미중 협상 능력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이 분수를 모르고 우쭐대다 화를 자초했다’는 자성론이 확산되면서, 슈퍼 차이나론을 주장한 후안강 칭화대 공공정책대학원장에 대한 공격이 제기되는 등(『조선일보』 2018.8.4) 시진핑 1기에 추진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한 바 있다. 또한 칭화대(清华大) 사회학과 쑤리핑(孙立平) 교수는 중국이 10년만 늦게 중국몽을 들고 나왔더라면 미국이 지금처럼 감히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019년 중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기도 했다(孙立平 2019). 심지어 인민대 스원홍(时殷弘) 교수는 중국이 다시 ‘신도광양회(韬光养晦: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때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로 회귀하는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교수는 중국이 지난 5~6년간 대외관계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략전선에서 너무 높고 너무 빨리 ‘도약’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무역전선에서 매우 적은 성과를 거둬으로써, 중국의 경쟁자를 ‘동원’해낸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5~6년 동안의 긴박한 임무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도광양회와 유소작위(有所作为: 해야 할 일은 나서서 이룬다)정책, 즉 대폭적 전략적 태세(態勢)의 축소와 무역 조정을 추진하여 상당정도에서 미국이 ‘동원’되기 이전의 느슨한 상황에 놓이도록 한 후에 새로운 전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时殷弘 2019). 한편 공산당 내부에서도 『재정(財政)』과 『신화망』을 통하여 대미 협상을 둘러싼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상호 비판이 노출되는 등 대응책을 둘러싸고 강은 대립이 드러난 바 있다(苏琦 2019; 『新华网』 2019.6.9).

이처럼 중미간 무역분쟁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미 간 세력 전이 과정에서 나타난

세력 경쟁의 한 형태로, 양국관계가 장기적으로 경쟁관계에 처해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중국이 그동안 누려온 ‘전략적 기회’ 시기가 지나가고 새롭고 이질적 성격의 ‘전략적 경쟁기’로 진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쟁속에서 경제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FT中文网』 2019.2.21.). 이러한 경쟁과 갈등관계로 치닫는 중미관계는 19차 당대회를 통하여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과 헌법에 삽입하고 국가 주석과 부주석직의 임기 제한제를 철폐한 후 이른바 ‘두개 수호(① 당 중앙의 핵심과 전당의 핵심 시진핑 총서기 수호, ②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영도 수호)’를 주창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 시진핑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향후 후계구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위기는 곧 중국 공산당과 개혁개방정책 전반에 대한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중국공산당으로서는 자칫 개혁개방정책의 실사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은 중미 무역전으로 시작된 한 중미 갈등의 본질과 그것을 둘러싼 중국 내부의 인식을 중국의 학계와 정치 지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진핑 정권의 대응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경제무역전과 중미 갈등의 본질에 대한 중국내의 인식

중국은 중미관계를 “국제관계의 대세를 좌우하고 인류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간주하면서 중국외교의 핵심영역으로 삼아왔다(门洪华 2018). 그것은 부상하는 중국에게 현재의 세계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주요한 경쟁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은 미국과 상호 존중, 협력과 윈윈, 비대항의 이른바 신형(강)대국관계를 수립하여 전쟁이 수반되지 않은 평화적 부상을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중미 간 무역마찰로 시작된 중미 갈등은 안보와 이데올로기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세력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중국내에서는 무역충돌의 강화는 양국의 ‘신산업혁명’에서의 전략적 경쟁으로 미래의 경제발전 중 누가 세계의 주도적 지위를 점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성격을 지닌

무역전쟁으로 간주한다(门洪华 2018). 문제는 2018년 무역전으로 유발된 중미 갈등이 무역전을 넘어 과학기술, 안보, 이념과 제도에 대한 영역으로까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이다. 푸단대 우신보(吴心伯) 교수는 미국이 경제무역관계를 돌파구로 삼아, 외교·안보, 인문분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확대하면서 대중국 관계의 틀을 재구성하려 한다고 평가한다: 첫째, 경제무역 영역에서 관세전, 기술전, 금융전을 통해서 관계를 재편하고, 둘째, 안보영역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인 타이완 문제에 대해 사상 최대 금액의 타이완 무기판매, 미-타이완 외교적 교류의 등급 격상, ‘인태전략보고서’에서 타이완을 ‘국가(country)’로 간주하면서 타이완의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부각시키려는 행위 등을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또한 미군이 2019년 남중해에서 벌인 25년 이래 최대 횡수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 행동,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BRI)에 대한 공격과 ‘인태전략’을 통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정치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공격 강화, 홍콩과 신장(新疆)문제에 대한 개입 등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력 강화이다(吴心伯 2020).

이러한 미국의 변화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대체로 1978년 개혁개방이래 비록 약간의 굴곡이 있긴 하였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취해 온 개입주의 정책이 억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한 전문가는 신중국 건설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3차례의 중대한 조정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이런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첫 번째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곧이어 발생한 한국전에 중국이 참전하면서, 미국은 제2차 대전 중에 맹우(盟友)로 규정했던 중국을 봉쇄와 억제 대상으로 위치지우고 봉쇄정책을 실행했다; 두 번째는 1972년 닉슨의 방중과 함께 중미 관계가 데탕트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대중정책은 기존의 ‘전략적 억제’에서 ‘건설적인 접근’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미국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들어오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국이 미국과 공통의 가치관과 정치체제를 갖는 길로 가도록 시도하고자 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등장이후 미국은 기존의 ‘건설적 접근’ 정책에서 다시 ‘전략적 억제정책’으로 회귀한다.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속에 편입되기 보다는 중국식의 발전경로, 성장모델, 가치이념에 기초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한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중국을 ‘건설적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에서 ‘전략적 견제’의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러시아를 주요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우선적 전략의 순위

에 놓았던 것에서 전환하여 그 초점을 중국으로 이동시켰다(姜龙范 2019, 50~51).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정책의 변화는 2017년 말부터 미국내에 나타난 일련의 중국과 관련 조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017년 말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전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로 규정한 이후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마이클 펜스 부통령은 Hudson Institute 연설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제2의 냉전이라고 선언하고 미중이 냉전으로 가는 결정권은 중국에 있으며 만약 중국이 미국과 냉전을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행위를 바꾸어야 하며 미국은 절대 퇴각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The White House, October 4, 2018). 뒤이어 스탠포드대학교 Hoover Institution에서 2018년 11월 29일 미국내 중국 전문가 32명이 1년에 걸쳐서 작성한 213쪽의 보고서 (Chinese Influence & American Interests: Promoting Constructive Vigilance)를 발표하여 중국이 미국의 정부, 대학, 매체, 싱크탱크기관, 기업과 화교계에 전면적으로 침투하여 조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Diamond & Schell eds. 2018). 또한 2019년 6월 1일에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을 발표하여, 인태지역의 전략 추세 및 도전으로 지역 내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중국, 지역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악성 국가로 부활하려는 러시아, 핵과 재래식 위협으로 지역안보를 저해하는 불량국가 북한 등을 명시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위협적 행위를 중국공산당이 이끌고 있다고 언급하고 타이완을 ‘나라(country)’로 언급하는 등 전통적으로 중미 사이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인 공산당과 타이완의 ‘주권국가’ 지위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The Department of Defense, June 1, 2019).

이런 중국에 대한 고강도의 비판적 흐름 속에서 미국내에서는 공자학원 폐쇄, 미국 내의 중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나 기구의 운행 중지, 유학생 비자 발급 자격강화 등, 비록 현재의 중미 간 갈등이 냉전기의 양대 진영 간의 대립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흡사 이념, 경제무역, 정치적 대항이 냉전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국의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중미관계가 아직 냉전의 정도는 아니지만, 정치, 경제무역, 인문 3대 지주 모두에서 붕괴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吴湘宁 2019).

재미 중국학자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청 박사는 미국 사회내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은 정파를 초월하여 일종의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

지 제기된 비판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경제와 무역에 있어서 시진핑의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한 비즈니스 및 무역 관행에 대한 비판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조, 사영 및 외국기업 내에 공산당 지부 설립,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중국경제에서 시장의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보았고, 이것은 중국이 세계시장에 통합되어 규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 것을 저버린 것으로 인식한다; 둘째, 중국이 대외경제정책에서 경제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우려이다. 일대일로 구상을 ‘부채 덩어리’로 비판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unsustainable) 대출 및 부채 고통을 통해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하고 대형 양보를 끌어내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일대일로 구상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의 세력과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침식의 위험요인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인태전략을 제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을 연결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시진핑 정부가 취한 공세적 안보정책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는 인공섬의 건설을 앞두고 남중국해에서 해상활동을 증가시켰는데,¹⁾ 이것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기존 해상 규칙의 수명, 영토 분쟁의 유발, 타이완의 지위 등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를 초래했다. 이런 우려는 특히 중국이 국제무대의 중앙으로 진입하면서 부상하고 있다는 시진핑의 반복된 언급에 의해서 강화된 측면이 있다; 넷째, 중국의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야심이 미국의 경계를 초래했다.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AI)과 5G기술 추구는 미국의 기술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21세기 혁신의 성과물을 장악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정보 및 안보 위협을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Li & Liang 2019).

이처럼 미국내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경제, 과학기술, 군사안보, 지정학적 전략, 심지어 사회문화 영역에 까지 걸친 전 방위적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미국의 생각대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경제력에 기초하여 정치, 경제, 문화측면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중국적’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거나 혹은 ‘중국식’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고 사고하고

1) 2018년 7월까지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은 서사군도 트리톤(Triton) 산호초, 남사군도 수비(Subi), 가번(Gaven), 피어리 크로스(Fiery Cross), 쿼터온(Cuarteon), 존슨(Johnson), 미스첩(Mischief) 산호초 그리고 스킨보로 산호초 등 8개로, 이들은 남중국해 외곽 구단선에 인접되어 마치 구단선을 합리화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윤석준 2019).

있다(Campbell & Ratner 2018, 60-70). 리청은 현재 미국내의 이런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다만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할 뿐이라고 지적한다(Li, & Liang 2019). 실제로 2019년 7월 미국내 학자 100여 명이 서명한 대중국 정책에 대한 7가지 제안서가 『워싱턴 포스트』에 발표된 바 있는데, 학자들은 중국이 최근 억압적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미국의 강력하고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처럼 중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세계경제로부터 격리하려는 노력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명성을 손상시키고 모든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제안서를 통해 미국내에 중국에 대해 적대적 입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Fravel, Roy, Swaine, Thornton, Vogel 2019).

중국내에서는 현재와 같은 미국내의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트럼프 시기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 본질은 중미 간 국제질서를 둘러싼 세력경쟁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한 전문가에 따르면, 부시정부 때부터 미국 내의 전략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론을 강화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하여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중미 양국은 지적 재산권, 외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입문제, 인민폐 환율 및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 등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쟁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 중국정부가 제기한 ‘중국제조 2025’는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미국의 인공지능과 생명과학기술 영역의 주도적 지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중국이 제기한 일대일로 구상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지정학적 의도를 의심케 했다. 따라서 현재 중미 간의 충돌은 전략적 핵심 이익의 충돌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국제질서에서의 주도적 지위에 도전할 의도가 없음을 믿을 수 없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발전모델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吴湘宁 2019).

중국정부 역시 현재의 중미 간 경쟁과 갈등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현 시기를 ‘백년 미지의 대변화 국면’으로 규정지으면서 장기적 대응 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18년 6월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백년 미지의 대변화 국면’에 처했다고 언급한 이후, 중국학계는 ‘백년 미지의 대변화 국면’에 대한 담론을 중국의 영도자가 세계적 범위에서의 중국의 지위 설정과 영향력의 변화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면서(王逸舟 2019), 그 본질은 세계질서의 재구성이고, 그 핵심은 세계의 힘(power)이 국가 간과 정부와 사회 간에 재분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陈向阳 2018). 다만 세계가 대변화 국면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을 수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은 긴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통하여 각국의 중국에 대한 몰이해를 해소해 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朱锋, 黄仁伟 2019). 결국 이것은 중국정부도 현재의 중미 간 갈등의 본질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경쟁으로 보고 장기적 대응 태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Ⅲ. 중미 갈등의 대응방식을 둘러싼 중국내의 인식

중미 경제무역전을 거치면서 중국내에서는 현재의 중미 간 경쟁과 갈등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현 시기를 ‘백년 미지의 대변화 국면’으로 규정짓고 장기적인 대응태세를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거시적 국면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중국내의 시각은 크게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미 간의 현재의 전면적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중국은 현재의 국제질서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현재의 국제질서 속에서 개혁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중미 간에는 세력전을 둘러싼 갈등이 무역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중국은 무역전에 직면하여 담담하게 임해야하지만, 다만 아직은 중국과 미국 간의 국력차가 커서 미국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은 현 국제질서를 수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郑永年 2019).

이런 시각은 중국국제관계연구원의 천상양 박사의 주장을 통해서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시진핑이 언급한 세계가 ‘백년 미지의 대변화 국면’에 처했다는 주장의 본질은 세계질서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세계의 힘(power)이 국가 간과 정부와 사회 간에 재분배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신시대’에 중국의 외교는 ‘분발유위(奋发有为: 분발하여 성과를 내다)’하면서도 ‘도광양회(韬光

养晦)가 필요하고, ‘도광양회’와 ‘유소작위(有所作为)’를 총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를 지키고 연장함과 동시에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위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① 대외전략 지침으로 ‘도회유위(韬晦有为: 도광양회와 유소작위의 결합)’을 중시하고, 중국의 부상과 민족부흥을 위한 ‘신지구전(新持久戰)’을 구사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국력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여, 문제와 도전을 충분히 예측하고, 적시에 몸을 낮추어, 침착하게 차근차근 전진하며 확실하게 전투를 하면서 안정 속에서 전진을 추구하며, 객관적 조건을 무시하고, 서둘러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고, 능력을 뽐내며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불을 일으켜 자신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② 미중간 경쟁게임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책략을 짜서 정면충돌로 치닫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 ③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잘 다루어 중국이 못 화살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강온정책을 적절히 결합하여 중국 주변지역을 잘 관리하여, 대규모의 지역 군사적 충돌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陈向阳 2018).

둘째, 현재의 중미 간 충돌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임을 인정하고, 중미 간에 새로운 양국관계를 수립하여 냉전적 충돌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환구시보는 2018년 12월 28일 사설에서 “중미관계는 이미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무역전쟁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이미 변했으며, 그 근본적 원인은 중국이 이미 부상하여 미국의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기타 원인은 지엽적인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숨길 수도 없다”는 주장으로 현재의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냈다. 푸단대 우신보 미국연구소 소장도 중미 간의 모순은 1등과 2등간의 모순으로 미국을 추월하려고 하는 중국을 막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고, 미중 간의 경제적 이익 분배를 둘러싼 모순이며, 체제의 모순, 특히 발전모델 간의 모순 등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吴心伯 2019).

이 시각은 이처럼 중미 갈등의 원인을 구조적 요인에서 찾으면서 새로운 중미관계의 수립이라는 보다 적극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신보 교수의 중미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4가지의 언급에서 잘 나타난다: 첫째, 미중 관계는 진정한 글로벌 강대국 간의 관계가 되어야 하며, 중국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미국을 따라가거나 완전히 미국의 포로가 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중미 간 강대국의 게임은 우리가 좋은

싫든 간에 준비가 되든 안되든 간에 이미 이 단계로 진입했다; 둘째, 협력에는 새로운 모델이 있고 경쟁에는 새로운 규칙이 있어야 한다. 지난 40년 동안 중미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소중히 여기고, 중국의 경제발전, 타이완문제, 국내정치문제 등등에서 미국이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길 바랐다. 이제 중국도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이 점점 더 많이 중국을 찾아 협력할 것이다; 셋째,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결국 전면적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미 간에 이 문제를 잘 관리하여 군사적 충돌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국은 국내의 양호한 발전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고, 외교에서 지난 40년간의 경험을 흡수하여, 앞으로 미국과 더욱 완전하고 균형잡힌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가 중미관계를 포괄적 전략경쟁으로 정의했지만 두 나라 간에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제뿐 아니라 많은 국제문제, 지역문제, 새로운 분야에서 미국은 중국과 협력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중미관계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吳心伯 2019).

셋째, 현재의 상황을 중국정부의 너무 빠른 정책전환(이른바 모진(冒進))으로 인해 초래된 상황으로 보는 시각으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칭화대 쑤리핑 교수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세력구도에서 중미 관계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이것은 중국이 놓인 국제환경이 이미 근본적으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역사가 최소한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미국으로 하여금 최소 10년은 먼저 각성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도광양회에 기초하여 경제발전에 10년 정도 더 집중했더라면, 그 때에 이르러 미국은 경제적으로 감히 중국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추었다. 그 결과 미국이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정하고 누구를 적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국의 부상과 중국몽을 제기하면서 트럼프로 하여금 갑자기 중국이 바로 적임을 명확하게 발견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발전이라는 큰 문제를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미래는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 평화와 협력환경을 어떻게 다시 형성하는가에 달려있다(孫立平 2019; 時殷弘 2019).

칭화대의 추수룡 교수 또한 이 시각을 견지하면서 중국이 근대화과 이를 위한 평화적 대외환경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전략은

줄곧 명확하게 바로 근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이래, 중국몽(中國夢)이라하든, ‘두개의 백년’이라 하든, 그 실질은 4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중국이 향후 20~30년 동안 계속 성공한다면, 2045년까지,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00년 또는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 될 때가 바로 여러 면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강국(強國), 종합국력 제일의 대국(大國)이 될 것이다(중국의 경제 총량이 미국보다 앞서고, 경제의 질에서 미국과 맞먹고, 기술 분야도 미국에 뒤지지 않으며, 국제정치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도 미국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 전 세계가 중국의 이론, 제도, 도로(경로), 문화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중국이 차기 초강대국이 되면, 그때에서야 중국모델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전략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현대화하는 것이지, 결코 세계의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고, 과업의 중심을 국내 건설에 두어 근대화를 실현해야 한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며, 현존하는 국제체제를 무너뜨리고 중국적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중국의 부흥에 유리한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楚树龙 2019, 48~52).

상술한 중국 학계의 3가지 시각 모두 현재의 중미 간의 충돌을 중국의 부상에 따른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대응방향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보다 균형적인 새로운 강대국 관계 설정을 강조하는 시각과 경제발전과 평화적 대외환경의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도광양회정책²⁾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 중국정부는 이 3가지 입장 중 첫 번째 입장, 즉 기본적으로 미국과 정면으로 대결하기에는 중국이 경제, 과학기술,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수정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역량으로서 미국과 타협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은 18차 당대회와 1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중국이 국제질서의 중앙으로 다가가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통하여 새로운 형식의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인류운명공동체²⁾를 건설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태도를

2)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이른바 ‘인류운명공동체’는 국가 간 힘의 재분배되고 세계질서가 재구성되

보인 것과는 다소 비교된다. 시진핑은 2015년 9월 정치국 집단학습회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변화의 불가피성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질서와 국제체계에 ‘규칙을 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중국은 국제질서를 ‘학습하고 적응하는(学习适应)’ 역할에서 벗어나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 배치를 변혁하여 더 공정한 신국제질서를 수립할 것임을 강조했다(李建广, 杜文明, 邱耀洲, 冯慧文 2015). 그 이후 중국의 학자들도 이제 중국은 미국과 맞먹는 글로벌 강대국의 한 축으로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구상을 감추지 않았다. 상하이사회과학원 황런웨이(黄仁伟) 부원장은 다소 빠른 감이 있지만 중미관계의 핵심은 국제질서를 둘러싼 경쟁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이정남 2018). 또한 베이징대 왕지쓰(王缉思) (전)국제관계학원 원장이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옌펑(袁鹏) 원장도 2017년 중미 간에 국제 질서문제를 둘러싸고 비교적 큰 불일치가 존재하면서, 현재 양국 간 규칙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王缉思, 袁鹏, 赵明昊 2017). 베이징대 왕이저우 교수도 2008년 중국의 올림픽 개최와 미국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전 세계 다수 국가가 공인하는 종합국력이 미국 다음가는 신흥 초강대국(新兴超级大国)이 되었으며, 중국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든 다수 국가들은 거의 일치된 의견으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초강대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王逸舟 2019). 심지어 2019년 초에 연쉐통 칭화대 교수는 향후 5년 내에 국제질서가 미중 양극체제로 전환될 것임을 예견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阎学通 2019).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과 강력한 견제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당국가체제 내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일련의 언술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령 2019년 3월 전국인대 개최를 즈음하여 왕이 외교부장이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보다 분명하게 현 국제질서를 지키고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임을 강조하면서, 민족부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조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고 있는 ‘100년 미지의 대 변화 국면’에서, “혼란해 하는 세계에 중국이 해답을 주고, 시대의 물음에 대해 중국의 안을 제시한 것”으로 중국이 제시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청사진(비전)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의 추진은 시진핑 외교사상의 정수이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의 가장 선명한 깃발”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王毅 2019).

진보를 위하여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중국에 맞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 모델을 수입도 수출도 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국제질서를 대체하거나 전복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현 국제질서의 보호자이면서 건설자임을 강조했다(『新华网』 2019.3.10.). 이런 발언은 현재 미국내의 여론이 중국을 현 국제질서의 수정주의자로 간주하는 시각을 의식하여 분명한 강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10월 31일로 종료된 공산당 19기 4중전회 <공보>에서도 대외정책의 방향으로 새로운 형식의 국제관계 수립과 인류운명공동체 수립이라는 기존의 언급과 달리, 새로운 형식의 국제관계 수립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독립 자주적 평화외교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견지하고 완비한다고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시진핑 대외정책의 핵심인 일대일로에 대한 언급도 없고, 새로운 국제관계의 수립이 아닌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한다고만 언급하고 있다(中共十九届四中全會公報 (2019.10.31.)). 이런 언술은 19차 당대회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국제질서의 변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적 힘이 점점 균형을 이루고 있다” “새로운 형식의 국제관계 건설”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 등을 언급한 점과 대비된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의 주동적이고 적극적 대외정책의 전환이 미국의 공격을 불러일으켰다는 공산당 내외로부터의 공격이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인류운명공동체건설이라는 장기적인 대전략의 방향을 지속하면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일정하게 퇴각하여 속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신형대국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 주석의 국가대전략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기된 일대일로 전략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에 대한 기존의 언술을 툠다운 시키고, 실현 시기를 좀 더 길게 잡는 정도의 정책조정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과 신형국제관계 건설이라는 국가 대전략의 목표와 이것을 위한 신형대국외교, 전지구적 동반자관계의 구축, 일대일로전략의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체계 개혁의 추진 등의 정책 방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여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덜 부각시키고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여 개혁한다는 주장을 통해, 현 국제질서를 수정하여 미국을 대체하고자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평가와 전망

2018년 무역전으로 시작된 중미 갈등은 무역전을 넘어 과학기술, 안보, 이념과 제도에 대한 영역으로까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것은 중미 간 경제무역전의 본질이 중미 간 국제질서를 둘러싼 세력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과 함께 1978년 개혁개방이래 비록 약간의 굴곡이 있긴 하였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취해 온 개입주의 정책이 억제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하여 2017년 4월 미중 양국 정상(트럼프-시진핑)이 만나 중미관계를 더욱 격상하고 확대하기 위해 구축하기로 합의한 새로운 4대 대화메커니즘(외교안보대화, 전면경제대화, 법집행 및 인터넷안전 대화, 사회 및 문화 이슈 대화)은 완전히 중단됐다. 미국측은 이런 대화 메커니즘에 관심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잇따라 출범한 다른 많은 실무진과의 대화 채널도 대부분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우심 보어 2020).

이런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현재의 중미 간의 갈등을 ‘백년미지의 대변화 국면’에서 발생한 세력경쟁 과정에서 기인한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장기적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2019년 9월 3일 중앙당교 청년간부연수반 입학 연설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믿기 어려운 역사적 기회를 마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거친 파도를 만날 것이며, 중국이 마주하는 각종 투쟁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新华社』 2019. 9.3). 또한 상술한 19기 4중전회 <공보>에서도 공개적으로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시진핑 지도부는 신형대국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가 대전략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기된 신형대국 외교, 일대일로전략, 글로벌 거버넌스체제 개혁, 그리고 전지구적 동반자관계의 구축 등에 대한 기존의 언술을 톤다운 시키고, 실현 시기를 좀 더 길게 잡는 정도의 정책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략적인 목표에 대한 변화 없이 전술적으로 보다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여 신형국제관계 건설을 덜 부각시키고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여 개혁한다는 주장을 통해 현 국제질서를 수정하고자 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타협과 양보를 하면서도 마지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령 무역 협상 과정을 보면, 중국은 초기에는 미국과의 대결적 국면을 장기화하기보다는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사태의 조기 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5월 협상의 결렬에서 볼 수 있듯이 시진핑 정부는 미국과의 타협을 추구한다는 것은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결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즉 협상의 조기 종결이 과도한 불평등을 수반하는 위협을 감수하기보다, 갈등 해결을 지연시키는 가운데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이승주 2019). 그리하여 20개월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정부가 부득이하게 단계적으로 경제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점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중국측의 입장을 받아들일도록 했다(吳心伯, 2020).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시진핑 정부는 커다란 도전적 상황에 놓여있다. 비록 제1차 무역 협상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기술이전,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환율부문에서 중국의 경제 및 무역체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 및 기타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상당한 규모로 추가 구매할 것과 합의의 신속하고 효과적 이행 및 시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비 등 미국의 요구를 상당 정도로 수용하여 협상을 이끌어내었지만, 미국과의 경제무역전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진행행으로 남아있다. 더군다나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은 경제와 외교안보, 제도와 가치 등의 이념적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시진핑 주석은 당내의 고위 지도부에 대한 단결을 강조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대대적 통제정책을 통하여 체제 불안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부터 우한지역에서 발생하여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중국 사회 저변으로부터 비판이 들끓고 있다. 당국의 정보통제로 초기에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세계적인 대재앙의 확대를 초래한 당국에 대한 비판과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지고 있다(『美国之音』 2020.2.11.). 또한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 중국경제전문가는 낙관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5% 중반대로 낮아지고, 코로나 확산이 상반기까지 장기화할 때는 ‘바오우(保五·5% 성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올해 춘절의 소비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줄어들었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4%도

미치질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양평섭 2020). 이처럼 우한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2022년 말 20차 당대회에서 장기집권의 길을 열고자 하는 시진핑 주석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시진핑의 장기집권 의도로 인해 집단지도체제의 권력승계 메커니즘이 사실상 파괴되면서 시진핑 이후의 후계구도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경기침체와 시진핑 1인으로서의 권력집중과 정치통제의 강화와 이에 대한 불만의 증가로 시진핑이 안정적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망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2019년 10월 31일 종료된 중공 19기 4중전회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시진핑의 정책과 지위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이 없이 시진핑의 지도력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이것이 곧 시진핑의 장기집권 시도가 안정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중관계 악화와 홍콩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의 경제적 상황이 침체상황으로 치닫고, 이런 상황에서 우한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시민사회의 분노와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은 상황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책임이 시진핑 주석에게 돌아갈 경우 시진핑의 장기집권 구상은 상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초래될 정치적인 혼란은 중국의 부상 플랜 전반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있어 1989년 천안문사건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이유로 1989년 천안문사태와 같은 극적인 혼란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통치엘리트층이 중국몽의 실현이 목적의 현실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파괴적 갈등으로 가는 것을 극도로 자제할 것이라는 점이다. 엘리트층 내부에서 파괴적 갈등의 형태를 띤 권력투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에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지식인과 시민사회에서도 장기 집권을 막을 만큼 강력한 조직화된 역량이 성숙된 것이 없다는 점이다. 조직화는 커녕 현재 중국의 지식인이나 시민사회는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눈에 띄는 담론의 형성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셋째,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국제무역 1위를 점하는 국가로서, 내수가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이다(郑永年 2019). 따라서 미국의 제재에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투자와 무역에서 중국과 이미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어, 중미 간 타협이 지연되면서 교착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더

라도 이것이 곧 국제사회와 중국의 분리 혹은 중국의 고립으로 치닫기는 어려울 것이다. 동시에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도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 고 일: 2020. 01.06.

심사완료일: 2020. 02.06.

계 재 일: 2020. 02.28.

참고문헌

- 양평섭. 2020. “[자이나인사이트] 사태 장기화하면 중국 경제 5% 성장에도 먹구름,” 『중앙일보』. (2020.02.12.).
- 윤석준. 2018.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화하는 중국, 그 득실은?” 『진실의 길』. <https://www.poweroftruth.net/>(2018.7.31.).
- 이승주. 2019. “미중 무역 전쟁의 동학: 외연의 확대와 상호의존의 역습,” 『EAI이슈브리프』. (2019-08-23).
- 이정남. 2018. “시진핑의 중국몽(中国梦): 파스 시니카(Pax-Sinica)구상과 그 한계,” 『아세아 문제연구』. 제 61권 4호.
- 『조선일보』. “EU, 중국을 ‘적대적 경쟁자’로 규정,” 2019.3.15.
- _____. “3대 걸친 ‘중권력 브레인’ 후안강의 몰락,” 2018.8.4.
-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2019. “[현지정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타결 내용 및 현지 반응,” (한국은행, 2019.12.16.).
- “Remarks by Vice President Pence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The White House, October 4, 2018).
- Diamond, Larry & Schell, Orville(eds.). 2018. *Chinese Influence & American Interests: Promoting Constructive Vigilance* (Hoover Institution).
- 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 Li, Cheng & Liang, Diana. 2019. “Rule of the rigid compromiser,” *The Cairo Review of Global Affairs* (Spring 2019).
- Campbell, Kurt M. & Ratner, Ely. 2018. “The China Reckoning: How Beijing Defied American Expectations,” *Foreign Affairs*. Vol. 97, Issue. 2, (Mar/Apr 2018).
- Fravel, M. Taylor, Roy, J. Stapleton, Swaine, Michael D., Thornton, Susan A., Vogel, Ezra. 2019. “China is not an enemy,” *The Washington Post* (July 3, 2019).
- 吴湘宁. 2019. “2019: 中美关系进一步冰封还是解冻?” 『FT中文网』. (2019.1.8).
- 门洪华. 2019. “新时代中国国际战略研究与反思,” 『学术月刊』. 第11期.
- 陈向阳. 2018. “世界大变局与中国的应对思考,” 『现代国际关系』. 第11期.
- 朱锋, 黄仁伟. 2019. “百年大变局-含义、认识与未来经济挑战,” <http://www.aisixiang.com/>

data/117293.html(검색일: 2019.7.21).

- 张杰. 2019. “习近平挖坑、李克强填坑 人大代表吓得想回家,” 『博讯』. (2019.3.7.).
- 孙立平. 2019. “2019, 是对2018做出反应的一年,并决定2020年之后,” 『营创读书会』. 2019年 2月 11日.
- 时殷弘. 2019. “全球巨变中的特朗普与中国,” 『世界政治研究』. 第一辑 (总第三辑).
- 苏琦. 2019. “以人民的利益为重,” 『财经』. 2019年 6月 3日.
- 王逸舟. 2019. “从“经济大国”到“仁智大国”—国际秩序之变与中国作为,” 『中央社会主义学院学报』. 4期.
- 郑永年. 2019. “中国应坦然面对贸易战,” 『中国发展高层论坛公众号』. (2019.3.7.).
- 吴心伯. 2019. “美国阻挠中国崛起的三张王牌—脱钩、限制和施压,” 『人文智慧在线』. (2019.6.10).
- _____. 2020. “华盛顿重构对华关系能走多远,” 『环球时报』. (2020.1.6).
- 楚树龙. 2019. “尘埃未定的大变局,” 『中央社会主义学院学报』 4期.
- 王毅. 2019. “敦促美方与中方一道, 把中美关系扳回健康发展的轨道,” 『观察者网』. (2019.12.24).
- 李建广、杜文明、邱耀洲、冯慧文. 2015. “500年未有之变局! 习近平对国际局势做5点最新断,” 『人民日报』. (2015.10.14).
- 王缉思、袁鹏、赵明昊. 2017. “中美智库研究报告①: 两国应根据新现实 制订新的共同准则,” 『澎湃新闻』. (2017.5.22.).
- 阎学通. 2019. “中国现在需要重新认识世界,” 『界面新闻』. (2019.1.18.).
- 郑永年. 2019. “美对中国“经济战”与中美关系,” 『联合早报』. (2019.6.18.).
- 姜龙范. 2019. “中美日三边关系博弈互动的新常态、新挑战及对策建议,” 『东北亚学刊』. 2期.
- “让投降论成为过街老鼠,” 『新华网』. (2019.6.9.).
- “中共再收紧有关武汉疫情的舆论,” 『美国之音』. (2020.2.11).
- “2019年全国两会外交部部长王毅答记者问(记者会全文实录),” 『新华网』. (2019.3.10.).
- “习近平在中央外事工作会议上强调坚持以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外交思想为指导努力开创中国特色大国外交新局面,” 『新华网』. (2018.6.23.).
- “从‘战略机遇期’到‘战略竞合期,’” 『FT中文网』. (2019.2.21.).
- “2019年全国两会外交部部长王毅答记者问(记者会全文实录),” 『新华网』. (2019.3.10.).
-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公报,” (2019年 10月 31日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通过) 『新华社』. (2019.10.31.).
- “习近平在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中青年干部培训班开班式上发表重要讲话,” 『新华社』. (2019.9.3.).

Chinese Intellectuals and Political Leaders' Understanding of the Nature and Countermeasures of Economic and Trad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Jung Nam Lee

This article examines Chinese intellectuals and political leaders' understanding of nature and strategy of economic and trad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forecasts the direction of the Xi Jinping regime. China recognizes the current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as an inevitable process following China's rise, emphasizing the posture of long-term response. In the academic community, there are three views about the long-term phase of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irst, establishing a new and more balanced power relationship with the US; second, returning to Taoguangyanghui(韬光养晦) policy; third, maintaining strategic goals but seeking a tactical retreat for a compromise with the US. In fact, the Chinese government is seeking to find a way to compromise by emphasizing its role as a participant rather than a modifier of the current US-led international order and stepping away from directly confronting the United States. By doing so, China is trying to dispel US concerns that China is trying to revise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Keywords: Economic and Trad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Power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New Taoguangyanghui(韬光养晦) Policy, New F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uman Destiny Community

